

近世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 四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

金 鎔 均**

(e-mail : kygyun@cau.ac.kr)

目 次

- | | |
|------------------|------------------------|
| 1. 序 論 | 3.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實態 |
|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 4.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
| 2.1 調査 資料 | 5. 四段化의 完了時期 |
| 2.2 考察 方法 | 6. 結 論 |
-

1. 序 論

日本語의 통시적인 고찰 시 寶庫라고 할 수 있는 近世 日本語의 다양한 活用形式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さ)する」→「(さ)す」)은 주목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는 下一段化 傾向(「(さ)する」→「(さ)せる」)을 보이는 江戸語와 四段化 傾向을 보이는 上方語의 양 언어 간에 있어서 대립이 뚜렷하다는 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文法史的 사실 즉, 당시의 영향이 오늘날에도 미쳐 現代 日本語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두가지의 使役表現이 병용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당시 江戸語와 함께 日本語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近世後期 上方語(이하, ‘後期 上方語’라고 약칭함), 특히 宝曆~弘化期(1751~18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일어학과 부교수, 일본어학

47)의 上方語에 보이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대하여, 전체적인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지금까지 上方語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湯沢幸吉郎¹⁾, 坂梨隆三²⁾, 山県浩³⁾ 등의 연구와 근래의 拙稿⁴⁾가 있는데, 後期 上方語보다는 前期 上方語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後期 上方語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島田勇雄⁵⁾, 奥村三雄⁶⁾의 연구 이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인 듯하다. 이 중에서도 오늘날 각종 연구에서 그 인용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주목을 끄는 것은 후자의 연구이다. 구체적인 자료 즉, 後期 上方語資料인 上方洒落本 14種과 上方小咄本 2種을 조사 대상으로 文體, 位相 간에 따른 四段化의 遲速 차이와 完了時期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法史의 고찰 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형태 변화인 單語와 活用形 간의 四段化 遲速 차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수적으로 볼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한된 자료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구 과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宝曆~弘化期の 자료 34種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전술한 拙稿에 의하여 지적된 近世前期 上方語(이하, ‘前期 上方語’라고 약칭함) 즉, 元禄~享保期(1788~1735)의 上方語에 나타나는 四段化의 傾向⁷⁾과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四段化의 傾向 및 完了時期⁸⁾와 비교하면서, 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四段化의 실태와 진행 정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전체적인 傾向을 遲速 차이를 중심으

1)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p.350~362

2) 坂梨隆三(1982) 「近代の文法Ⅱ(上方編)」 『講座国語史4・文法史』、大修館書店、pp.502~503

3) 山県浩(1982)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サ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 10、pp.36~58

4) 金鎔均(2010)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研究』 44,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207~228

5) 島田勇雄(1959) 「近世後期の上方語」 『国語と国文学』 36-10、p.76

6) 奥村三雄(1967) 「近代京阪語の使役辞」 『国語国文』 36-1、pp.32~45

7) 金鎔均, 前掲書(4), pp.215~225에 의하면 前期 上方語에 보이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傾向으로서, ①單語 별로 보면 使役助動詞「する」, さする, 使役動詞「さする」의 순으로 四段化가 進行되고 있다. ②活用形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命令形, 終止·連体形, 未然形, 連用形의 순으로 四段化가 進行되고 있다(단, 세부적으로 보면 使役動詞「さする」에서는 連用形, 未然形의 순으로 四段化가 進行되고 있다). ③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 進行 속도는 地文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④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四段化의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등이 지적된다.

8) 奥村三雄, 前掲書(6), pp.38~40에 의하면 後期 上方語에 보이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傾向으로서, ①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 進行 속도는 地文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②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女性語의 四段化 進行 속도는 男性語의 四段化보다 빠르다고 지적되고, 대체로 完了時期는 宝曆期이라고 지적된다.

로 검토함과 동시에 그 원인도 살펴보고, 또한 完了時期도 推定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後期 上方語에 관한 고찰은 前期 上方語에 보이는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점과 從來의 論과는 달리, 位相 간에 따른 四段化의 遲速 차이와 完了時期를 推定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日本語史 기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2.1 調査 資料

조사 자료는 구어적인 요소가 강하여 당시 제한된 자료 가운데에서도 上方語 고찰 시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대표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後期 上方語資料로서 宝曆~弘化期の 上方洒落本 34種을 대상으로 하였다. 成立(刊行)時期 별로 보면 宝曆期(1751~1763) 자료가 [1]~[8]의 8種, 明和期(1764~1771) 자료가 [9]의 1種, 安永期(1772~1780) 자료가 [10]~[11]의 2種, 天明期(1781~1788) 자료가 [12]~[13]의 2種, 寛政期(1789~1800) 자료가 [14]~[24]의 11種, 文化期(1804~1817) 자료가 [25]~[28]의 4種, 文政期(1818~1829) 자료가 [29]~[32]의 4種, 天保期(1830~1843) 자료가 [33]의 1種, 弘化期(1844~1847) 자료가 [34]의 1種이다. 底本 으로서는 『洒落本大成』을 사용하였는데 이하,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後期 上方語資料인 上方洒落本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1] 『月花余情』(1756) | [2] 『陽台遺編』(1756) | [3] 『そうかく秘言』(1756) |
| [4] 『聖遊廓』(1757) | [5] 『穿当珍話』(1757) | [6] 『新月花余情』(1757) |
| [7] 『原柳巷花語』(1757~1763) | [8] 『列仙伝』(1763) | [9] 『異本郭中奇譚』(~1771) |
| [10] 『風流裸人形』(1778) | [11] 『虚辞先生穴賢』(1778) | [12] 『粹字瑠璃』(1785) |
| [13] 『短歌藥葉』(1786) | [14] 『北華通情』(1794) | [15] 『酔のすじ書』(1794) |
| [16] 『裸百貫』(1796) | [17] 『うかれ草紙』(1797) | [18] 『戲言浮世瓢單』(1797) |
| [19] 『十界和尚話』(1798) | [20] 『阿蘭陀鏡』(1798) | [21] 『身体山吹色』(1799) |
| [22] 『粹學問』(1799) | [23] 『昇平楽』(1800) | [24] 『南遊記』(1800) |
| [25] 『当世嘘之川』(1804) | [26] 『こゝろの外』(1806) | [27] 『当世廓中掃除』(1807) |
| [28] 『竊潜妻』(1807) | [29] 『箱まくら』(1822) | [30] 『花街風流解』(1824) |
| [31] 『色深狹睡夢』(1826) | [32] 『北川蜆殻』(1827) | [33] 『老楼志』(1832) |
| [34] 『風俗三石土』(1844) | | |

2.2 考察 方法

고찰 방법은 자료 34種⁹⁾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¹⁰⁾의 下二段活用例와 四段化例¹¹⁾를 전부 추출한 다음에 單語 즉, 使役助動詞「する」와 「さする」, 使役動詞「さする」로, 活用形에서는 未然形, 連用形, 終止·連体形, 已然形, 命令形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文體的인 면에서는 地文과 會話文으로, 位相的인 면에서는 男性語와 女性語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完了時期를 推定하기 위하여 자료 34種의 成立時期에 따라 宝曆~安永期(1756~1778)의 자료 11種과 天明~寛政期(1785~1800)의 자료 13種, 文化~弘化期(1804~1844)의 자료 10種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전술한 拙稿에 의하여 지적된 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四段化의 傾向과,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四段化의 傾向 및 完了時期와 비교하면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3.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實態

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宝曆~弘化期の 자료[1]~[34]에 보이는 使役助動詞「する」와 「さする」, 使役動詞「さする」의 下二段活用例와 四段化例를 각 자료 별로 地文과 會話文 및 活用形으로 분류하여 먼저 <표1>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傾向을 살펴보기 위하여 會話文의 四段化率을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단, 여기에서 序·跋은 자료에 따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고찰을 위하여 제외한다.

10)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後期 上方語資料 34種을 분석한 결과,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傾向과는 달리, 동일한 형태인 敬語(尊敬)助動詞「(さ)する」의 경우 前期 上方語(金銘均, 前掲書(4), pp.210~211에 의하면 前期 上方語의 敬語助動詞「(さ)する」의 경우 四段化 傾向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된다)와 마찬가지로 四段化 傾向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敬語助動詞「(さ)する」의 용례는 地文의 경우 자료[32]에 2例(「立たせたまへど」(318上4) 「しらせ給はぬ」(323下17)), 會話文의 경우 자료[8]에 2例(「かたらせたまへ」(216上11) 「聞かせ玉へ」(219下16)), [34]에 1例(「聞せ給へ」(286下13)) 보인다.

11) 단, 「-(さ)すべし」와 같이 推量の 助動詞「べし」가 접속되어 下二段活用の 舊終止形인지, 四段活用の 終止·連体形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당시는 가정조건법이 「未然形+ば」에서 「已然形+ば」로 이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さ)せば」와 같이 接續助詞「ば」가 접속되어 下二段活用の 未然形인지, 四段活用の 已然形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1>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實態

資料				使役助動詞				使役動詞				資料				使役助動詞				使役動詞					
				する		さする		さする		する						さする		する		さする		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宝	[1]月花余情 (1756)	會	用	1	2																				
			止:休		1																				
	[2]陽台遺編 (1756)	會	用		2																				
			未		1																				
	[3]そうかく秘言 (1756)	會	用		5																				
			未		1																				
	[4]聖遊廓 (1757)	地	用	2	1																				
			止:休		1																				
[5]穿当珍話 (1757)	會	用	4																						
		未		1																					
[6]新月花余情 (1757)	地	用	2																						
		會	用		1																				
[7]原柳巷花語 (1757~1763)	會	未		2																					
		用	3	2																					
		止:休	1				1																		
[8]列仙伝 (1763)	地	用	4	1																					
		止:休		1																					
	會	未	1	1																					
		用	1																						
[9]異本郭中奇譚 (~1771)	會	未		1	1																				
		用	7																						
[10]風流裸人形 (1778)	會	用	4	6																					
		未		2																					
[11]虚辞先生穴賢 (1778)	會	未		3																					
		用		3																					
[12]粹字瑠璃 (1785)	地	未		4																					
		用	6	5	1		2																		
		止:休		1				1																	
	會	已	1				1																		
		未	1			1	1																		
		用		1			2																		
[13]短歌薬葉 (1786)	地	用	2																						
		未				1																			
	會	用	1	4	1																				
		止:休		1																					
[14]北華通情 (1794)	地	用	1	1																					
		未		1																					
	會	用		3																					
		未		2																					
	[15]酔のすじ書 (1794)	地	用		2																				
			止:休		2																				
		會	未		1																				
			用		1																				
	[16]裸百貫 (1796)	地	未		2																				
			用	4	2																				
		會	用		1																				
	[17]うかれ草紙 (1797)	會	未		2																				
用			2	4			1																		
止:休							1																		
[18]戲言浮世瓢單 (1797)	地	未		2																					
		用	9	1			2																		
		止:休	3	3	1																				
	會	已																		1					
		未	1																						
		用		1	1																				
[19]十界和尚話 (1798)	地	用		1																1					
		止:休		2																					
	會	未		1																1					
		用		3	1															2					
[20]阿蘭陀鏡 (1798)	地	未		2																					
		用	3	3																					
[21]身体山吹色 (1799)	地	止:休		1																					
		用	2	5			1																		
	會	止:休		1																					
		命		2																					
[21]身体山吹色 (1799)	地	未		1																					
		用	1		1			1																	
	會	用		6			1													4					
		止:休		3																3					

資料		活用		使役助動詞				使役動詞		資料		活用		使役助動詞				使役動詞			
				する		さする		さする						する		さする		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寛政	[22]粹学問 (1799)	地	未		1					文	[29]箱まくら (1822)	地	未		2			2			
			用	4	4								7	3	2			1			
			止・体		1								1	2		1		3			
	[23]昇平楽 (1800)	會	未		2			1			會	未	1	3				2			
			用	3	7							4	10	1	1		3				
			止・体		3								2								
政	[24]南遊記 (1800)	地	未						政	[30]花街風流解 (1824)	地	未		2							
			用	3	2	4	1						2	9			1	1			
			止・体										1	3		2		2			
	會	未		2						會	未		1								
		用		13	1			3			用				1	1					
		止・体		4				1			止・体						1				
文	[25]当世嘘之川 (1804)	地	未		1				文	[31]色深辣睡夢 (1826)	地	未									
			用	6	3								5		1						
			止・体		1								止・体		1						
	會	未		4						會	未		2					1			
		用	1	4		6	1				用	5	13		1						
		止・体		1		2					止・体		3								
[26]こゝろの外 (1806)	地	未							[32]北川覬殻 (1827)	地	未							1			
		用		1							用	7	8			1					
		命		1							止・体		3								
化	[27]当世廓中掃除 (1807)	地	未				1		天保	[33]老楼志 (1832)	地	未		1							
			用	6	3	1							3	5	2			1			
			止・体		4		1						止・体		1			1			
	會	未		3			3			會	未		2								
		用	3	5	1		3	1			用	1	12	1	1	1					
		止・体		7		1					止・体		3								
[28]竊潜妻 (1807)	地	未							弘化	[34]風俗三石士 (1844)	地	未									
		用	1									用	1								
		止・体		1								未						1			
會	未	1	3					會		未											
	用		4			2	4			用	2	3									
	止・体		2		1		1			止・体		1									

* 地는 地文, 會는 會話文, 未는 未然形, 用은 連用形, 止・体는 終止・連体形, 已는 已然形, 命은 命令形을 의미한다.

<표2>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率(會話文)

活用形	活用		使役助動詞				使役助動詞 合計		使役表現 合計	
	する		さ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未然形 (四段化率)	5	36	1	2	6	38	8	1	14	39
		87.8		66.7		86.4		11.1		73.6
連用形 (四段化率)	54	131	7	13	61	144	10	18	71	162
		70.8		65.0		70.2		64.3		69.5
終止・連体形 (四段化率)	1	39		5	1	44	1	6	2	50
		97.5		100		97.8		85.7		96.2
命令形 (四段化率)		9		3		12				12
		100		100		100				100
計 (四段化率)	60	215	8	23	68	238	19	25	87	263
		78.2		74.2		77.8		56.8		75.1

4.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전술한 <표1>의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실태와 <표2>의 四段化率, 그리고 자료 34種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의 전체적인 傾向¹²⁾에 대하여 會話文¹³⁾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單語 별로 보면 使役助動詞「する」, 「さする」, 使役動詞「さする」의 순으로 四段化가 進行되고 있다.
- ②活用形에서 보면 命令形・終止・連体形, 未然形, 連用形の 순으로 四段化가 進行되고 있다¹⁴⁾.

12) 단, 使役表現「(さ)する」의 경우 四段化가 아닌 下一段化 傾向을 보이는 용례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례는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後期 上方語資料 34種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使役助動詞「せる」가 地文의 경우 자료[30]에 1例, 會話文의 경우 자료[27]에 1例 나타나는 데 그쳐, 전체적으로 보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7]私わたししや眞実まことじやと功言こうごんでばかりはいはせるいはせるでないか (当世廓中掃除, 309下11)

[30]仕方しかたによって大きおほきに客きやくをよるこばせるせものなれば。(花街風流解, 205下11)

13) 본고에서 會話文을 중심으로 고찰한 이유는 日本語史의 고찰 시, 地文보다는 당시 구어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된 會話文이 가치가 높고 우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體 간의 비교 이외에는 會話文이 중심이 된다.

14) 會話文의 경우, 전술한 <표1>과 <표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已然形의 용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③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④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四段化의 遲速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傾向①은 單語 별로 보면 使役表現의 四段化 진행 과정 속에서 使役助動詞와 使役動詞, 그리고 使役助動詞 내부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 서, 특히 주목된다. 이와 같은 傾向은 전술한 <표2> 즉, 전체적으로 보면 使役助動詞의 四段化率(77.8%)이 使役動詞의 四段化率(56.8%)보다 우위를 보이는 상황 과, 세부적으로 보면 使役助動詞「する」의 四段化率(78.2%)이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率(74.2%)보다, 使役助動詞의 四段化率이 使役動詞「さする」의 四段化率(56.8%)보다 우위를 보이는 상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單語 별로 보면 역시 使役助動詞「する」, 「さする」, 使役動詞「さする」의 四段化率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傾向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 은 傾向은 각 單語의 活用形 간 비교를 통해서도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나 타난다. 특히 후술하는 <표6> 즉, 使役助動詞「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가 使役助動詞「さする」보다,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가 使役動詞「さする」보 다 이르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傾向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傾向①의 반영 즉, 單語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근접 내지는 동일 인물에 의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庄)くがるが立にやねさせておけやい。(短歌藁葉、287上15)

(庄)おさの様どふいふて。いなしな^{かはり}さつた。(上同、287下10)

[25]大めれんあんまの代^{かはり}させてかんじんの所へは手もやらさず。(当世嘘之川、73上15)

ばんかく なめ いつそう きよくひ せんにん まくら だくゑ ふ そう 卯比よ せんきん つ ひか

[27]万客に舐させ一層の玉臂を千人の枕とさせし濁穢の腐操たる遊女を千金を積んで請出そ
 ふなどゝはいやはや (当世廓中掃除、321上2)

이 중에서 자료[13]은 使役助動詞「する」와 「さする」, [25]는 使役助動詞「する」와 使役動詞「さする」, [27]은 使役助動詞「する」와 使役助動詞「さする」 및 使役動詞「さ
 する」 간의 四段化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 면 傾向①은 前期 上方語의 傾向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單語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單語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使役助動詞「する」의 四段化 진행 속도가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보다 빠른

이 중에서 자료 [7]과 [25]는 未然形과 連用形, [29]는 未然形 및 終止·連体形과 連用形, [32]는 終止·連体形과 連用形 간의 四段化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다. 또한 다음 예문은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진일보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德)エ、わるいことすな^ね寐^ねさせ寐させ (十界和尚話、186下12)

[19]'(風)ソリヤなんほ入てもひかす^{おひ}つもりじやか……そふしてひか^{おひ}すと^{おひ}すぐに置^{おひ}所^{おひ}も^{おひ}せ^{おひ}んど^{おひ}から^{おひ}吟^{おひ}味^{おひ}して置^{おひ}た (上同、192上2)

[20]だんだん面白くなるゆへ。負^{まけ}た者^{のま}には吞^{のま}せ吞^{のま}せと^{のま}きは^{のま}ぎ^{のま}たて。(阿蘭陀鏡、94下11)

[27]全体妖婦は賺^{おやま}ものとしてそれを惚^{たま}さ^{ほれ}すやう身^{ほれ}をうた^{ほれ}すやうにな^{すい}ざるが^{すい}睥 (当世廓中掃除、315上3)

자료[19]와 [20]은 命令形の 四段化例가, [19]'와 [27]은 終止·連体形の 四段化例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예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②는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四段化 進行 속도가 거의 대등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前期 上方語의 傾向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四段化 進行 속도가 未然形과 連用形の 四段化보다 빠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未然形과 連用形の 四段化 進行 속도가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四段化보다 느린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전자의 원인으로서는 변화 시 어미 탈락의 용이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命令形「-(さ)せい」「-(さ)せよ」→「-(さ)せ」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어미「い」「よ」의 탈락이, 이와 마찬가지로 終止·連体形 또한 「-(さ)する」→「-(さ)す」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어미「る」의 탈락이 용이했을 것¹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자의 원인으로서는 변화 시 모음교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未然形「(さ)せ」→「(さ)さ」과 連用形「(さ)せ」→「(さ)し」에서 모음교체가 필요하여 변화 시 저해 요소로 작용한 것¹⁹⁾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連用形の 四段化 進行 속도가 未然形の 四段化보다 느린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未然形보다는 連用形 내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連用形에는 下二段活用形을 유지하는 傾向이 강한 용법 즉 中止法과 名詞的 용법(「知らせ」「人泣かせ」「思わせぶり」 등), 그리고 用言에 접속하는 용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²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8) 金鎔均, 前掲書(4), p.220

19) 山県浩, 前掲書(3), p.41

20) 山県浩, 前掲書(3), p.41

또한 文體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傾向③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地文과 會話文 간의 四段化率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地文과 會話文의 四段化率

活用 文體	使役助動詞				使役助動詞 合計		使役動詞 さする		使役表現 合計	
	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地文 (四段化率)	80	92	14	7	94	99	11	11	105	110
		53.5		33.3		51.3		50.0		51.2
會話文 (四段化率)	60	215	8	23	68	238	19	25	87	263
		78.2		74.2		77.8		56.8		75.1

먼저 使役表現 전체적으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率(75.1%)은 地文의 四段化率(51.2%)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우위는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만큼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會話文에 있어서 使役助動詞「する」(78.2%) 및 「さする」(74.2%)와 使役動詞「さする」(56.8%)의 四段化率は 地文에 있어서 使役助動詞「する」(53.5%) 및 「さする」(33.3%)와 使役動詞「さする」(50.0%)의 四段化率보다 우위를 보인다.

실제로 傾向③의 반영 즉, 地文과 會話文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何かむりにのみのみこませすぐにりきを内へかへす……おさの様どふいふて。いなしなさつた
(短歌藥葉、287下11)

전자(「のみこませ」)가 地文의 용례, 후자가 會話文의 용례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③은 前期 上方語의 傾向과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後期 上方語의 傾向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地文과 會話文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文體的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당시 사용된 언어를 충실하게 반영한 會話文과는 달리, 地文의 경우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여 당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²¹⁾, 상대적

21) 金鎔均(2004)「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으로 四段化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位相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傾向④는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後期 上方語의 傾向 즉, 女性語의 四段化 진행 속도가 男性語의 四段化보다 빠르다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먼저 傾向④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會話文 중에 사용되는 男性語와 女性語 간의 四段化率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료 34種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男性語와 女性語의 四段化率

性別 活用		使役助動詞				使役助動詞 合計		使役動詞 さする		使役表現 合計	
		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會 話 文	男性語 (四段化率)	33	104	4	14	37	118	7	11	44	129
			75.9		77.8		76.1		61.1		74.6
	女性語 (四段化率)	27	111	4	9	31	120	12	14	43	134
			80.4		69.2		79.5		53.8		75.7

먼저 <표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은 使役表現 전체적으로 보면 男性語의 四段化率(74.6%)과 女性語의 四段化率(75.7%) 간에 있어서 거의 遲速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傾向은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男性語에서는 使役助動詞「さする」(77.8%)와 使役動詞「さする」(61.1%)에서 우위를, 女性語에서는 使役助動詞「する」(80.4%)에서 우위를 보여 位相에 따른 일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전술한 <표1>의 자료 34種 중에서 男性만 등장하는 자료 2種([5][23])과 女性만 등장하는 자료 2種([2][3])을 제외한 30種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5>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5> 男性과 女性 모두 등장하는 자료 30種의 男性語와 女性語의 四段化率

性別 活用		使役助動詞				使役助動詞 合計		使役動詞 さする		使役表現 合計	
		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下二段	四段						
會 話 文	男性語 (四段化率)	29	103	4	14	33	117	7	11	40	128
			78.0		77.8		78.0		61.1		76.2
	女性語 (四段化率)	27	103	4	9	31	112	12	14	43	126
			79.2		69.2		78.3		53.8		74.6

<표5>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 역시 <표4>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使役表現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동등한 四段化率을 보이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보면 각 單語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전술한 결과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명확한 遲速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傾向④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傾向④ 즉, 男性語와 女性語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없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9] (冬吉)お七たいこどんその太子さんいなしてしまいゝな (箱まくら、118下6←女)
 (可)お七さんばかりか。おまへさんまでそふかすをくわきされては。(上同、118下7←男)
- [31] (大)エ、しらんわいな。ほらいつばい人に氣をもませておゐて。(色深狹睡夢、323下10←女)
 (平)コレ大角そないにせずと。よふきゝ。……わがみに客をすりおろさせて。そのかねで
 身請み けしたといわれては。(上同、323下11←男)

자료[29]와 [31]은 男性과 女性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근접한 예문인데, [29]는 男性과 女性이 동시에 四段化例를, 이와는 반대로 [31]은 男性과 女性이 동시에 下二段活用例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位相에 따른 특별한 遲速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예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④는 前期 上方語와 일치하지만,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後期 上方語의 傾向과는 다르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二段活用動詞 및 助動詞의 一段化²²⁾를 비롯하여 女性語의 변화 속도가 男性語보다 빠르다는 日本語史的 傾向과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지 않는, 감정표현의 일종인 上二段活用動詞「恨<怨>むる」의 四段化²³⁾와 敬語 命令表現인「くだされ→ください」의 어미 변화²⁴⁾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拙稿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원인은 單語가 지니고 있는 의미적 특징 즉, 使役表現「(さ)する」의 경우 언어사용 시 男性과 女性의 어느 한 쪽이 아닌 양자 모

22) 奥村三雄(1968) 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実から史的考察へ- 『近代語研究』2、近代語学会編、p.231

23) 金鎔均(2009a) 「江戸初・中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上二段活用動詞「恨<怨>む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學』41, 大韓日語日文學會, pp.14~15

24) 金鎔均(2009b) 「江戸語 命令表現「くだされ」의 語尾 變化에 관한 考察-「なされ」→「なさい」의 語尾 變化와 비교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71-1, 韓國日語日文學會, pp.42~43

두에게 인식되어 변화 시 遲速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 四段化의 完了時期

먼저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를 推定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표 1>을 토대로 成立時期에 따라 각 자료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宝曆~安永期の 자료 11種과 天明~寛政期の 자료 13種, 그리고 文化~弘化期の 자료 10種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6>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後期 上方語資料 34種의 成立時期에 따른 四段化率(會話文)

活用 資料	使役助動詞						使役動詞		
	する			さする			さする		
	下二段	四段	四段化率	下二段	四段	四段化率	下二段	四段	四段化率
[A]宝曆~安永期 11種 (1756~1778)	24	32	57.1	1	1	50.0	1		0
[B]天明~寛政期 13種 (1785~1800)	10	81	89.0	4	8	66.7	4	13	76.5
[C]文化~弘化期 10種 (1804~1844)	26	102	79.7	3	14	82.4	14	12	46.2

전체적으로 보면 時間的인 推移에 따라 점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료[B]에 보이는 使役助動詞「する」의 四段化率과 [C]에 보이는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率이다.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를 推定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결국,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推定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①使役助動詞「する」의 경우, 會話文에 있어서 四段化의 完了時期는 天明~寛政期로 推定된다.
- ②使役助動詞「さする」의 경우, 會話文에 있어서 四段化의 完了時期는 文化~弘化期로 推定된다.

먼저 推定①은 <표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특징적인 사실로서 인정되는 만큼 이와 같은 推定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료[B]의 四段化率(89.0%)이 [A]의 四段化率(57.1%)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이미 완료 양상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推定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어 주목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ふり)私しやどふぞ去わしておくれなされ……私しやいなモ去わたしておくれなされ (十界和尚話、193下10)

[21]万吉が心こころにわしが得とくといひ聞きかよませよば祖母がまだいふわい其万吉にいふて聞きかすといふ
(身体山吹色、57下4)

[24]其知れた一色きかを云ふて聞きなされら、云ふて聞きふ……其一色をいふて聞きせといふじやないか
(南遊記、197下8)

즉, 寛政期の 자료[19][21][24]의 예문을 통하여 四段化例의 집중적인 사용이 인정되는, 이른바 완료 양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推定② 역시 <표6>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특징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료[C]의 四段化率(82.4%)은 [A]의 四段化率(50.0%)과 [B]의 四段化率(66.7%)보다 뚜렷한 증가가 인정되는 가운데, 이미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率과 비슷한 완료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推定②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어 주목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5]お前の処へ来る呉服屋まえに染とくさくしておくれんか。……この道江こふくが常着そめ染みちへさつおぎそめしたらさんざんの染そめやそめした。……あの小もんそめを染そめさそめしておくれ (当世嘘之川、71下3)

[25](彦)是ほどほれこれさなつてんしたらもう南天いるのまじほれなひとひも入いままいかい(助)まだ惚おほさかさおほさかす人があるはいいまな今は
大阪に (上同、78上16)

즉, 四段化例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文化期 자료[25]의 예문을 통하여 역시 완료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 後期 上方語資料에 근거하여 上方語에 있어서 會話文의 四段化 完了時期를 검토한 결과, 奥村三雄의 論 즉, 宝曆期에 완료된 것으로 推定하는 從來의 論(地文과 會話文, 使役助動詞「(さ)する」와 使役動詞「(さ)する」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이 일괄적으로 推定하였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는 天明~寛政期로,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는 이보다 늦은 文化~弘化期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使役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는 <표6> 특히, 자료[C]의 四段化率(46.2%)을 통하여 볼 때 時期的으로 더욱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6. 結 論

지금까지 近世後期 上方語(寶曆~弘化期)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대하여, 전체적인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遲速 차이의 관점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上方語資料인 上方洒落本 34種의 四段化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前期 上方語의 傾向과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從來의 論 즉, 後期 上方語의 傾向 및 完了時期와 비교하면서 單語, 活用形, 文體, 位相에 따른 遲速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會話文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먼저 前期 上方語의 傾向과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單語 별로 보면 使役助動詞「する」, 「さする」, 使役動詞「さする」의 순으로 四段化가 進行되고 있다.

둘째, 活用形에서 보면 命令形·終止·連体形, 未然形, 連用形の 순으로(단, 여기에서 보이는 내부적인 차이점은 後期 上方語는 前期 上方語와는 달리 命令形과 終止·連体形の 四段化 進行 속도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進行되고 있다.

셋째, 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四段化 進行 속도는 地文의 四段化보다 빠르다.

넷째, 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四段化의 遲速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後期 上方語의 고찰을 통하여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女性語의 四段化 進行 속도가 男性語의 四段化보다 빠르다는 奥村三雄에 의하여 지적된 後期 上方語의 傾向과는 달리,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使役助動詞「する」의 경우, 會話文에 있어서 四段化의 完了時期는 天明~寬政期로 추정된다.

셋째, 使役助動詞「さする」의 경우, 會話文에 있어서 四段化의 完了時期는 文化~弘化期로 추정된다.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의 주된 원인은 이미 奈良時代(710~794) 이

후 정착되어 당시 세력이 강한 サ行四段活用動詞(「照らす」「悩ます」 등)의 類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는 단순한 변화 과정이 아닌, 복잡한 변화 과정 즉 單語, 活用形, 文體에 따라 다양한 遲速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位相 즉,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前期 上方語의 傾向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前期 上方語 또는 後期 上方語만의 독자적인 傾向이 아닌 日本語史的 傾向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宝曆期로 推定하는 奥村三雄에 지적된 從來의 論과는 달리, 會話文에 있어서 使役助動詞「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가 天明~寬政期로 추정된다는 점과 使役助動詞「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가 文化~弘化期로 추정된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금후는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會話文에 있어서 使役動詞「さする」와, 地文에 있어서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 完了時期를 推定하기 위하여 조사 자료를 弘化期 이후로 더욱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 奥村三雄(1967) 「近代京阪語の使役辞」 『国語国文』 36-1、pp.32~45
 _____(1968) 「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実から史的考察へ-」 『近代語研究』 2、近代語学会編、p.231
 坂梨隆三(1982) 「近代の文法Ⅱ(上方編)」 『講座国語史4・文法史』、大修館書店、pp.502~503
 島田勇雄(1959) 「近世後期の上方語」 『国語と国文学』 36-10、p.76
 山県浩(1982)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サ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 10、pp.36~58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p.350~362
 金鎔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_____(2009a) 「江戸初・中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上二段活用動詞「恨<怨>むる」의 四段化 現象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學』 41, 大韓日語日文學會, pp.14~15
 _____(2009b) 「江戸語 命令表現「くだされ」의 語尾 變化에 관한 考察 -「なされ」→「なさい」의 語尾 變化와 比較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71-1, 韓國日語日文學會, pp.42~43
 _____(2010)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研究』 44,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207~228

要 旨

本稿は近世後期上方語(宝暦～弘化期)に現われる使役表現「(さ)する」の四段化現象について全体的傾向と完了時期を中心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特に、遅速差の観点から当時の有力な上方語資料である上方洒落本34種の四段化の実態の分析結果に基づいて前期上方語の傾向と奥村三雄によって指摘された従来の論、即ち後期上方語の傾向及び完了時期と比較しながら単語、活用形、文体、位相による遅速差とその原因についても検討してみた。その結果、会話文を中心にいくつかの特徴的事実が明らかにされた。

まず前期上方語の傾向と大体一致する事実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 ①単語別に見ると、使役助動詞「する」、「さする」、使役動詞「さする」の順に四段化が進んでいる。
- ②活用形別に見ると、命令形・終止・連体形、未然形、連用形の順に四段化が進んでいる。
- ③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会話文の四段化は地文の四段化よりはよい。
- ④位相的な面から見ると、男性語と女性語間による四段化の遅速は見られない。

更に、後期上方語の考察を通して新しく確認された事実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 ①位相的な面から見ると女性語の四段化は男性語の四段化よりはよいという奥村三雄の従来の論とは異なつて男性語と女性語間による四段化の遅速は見られない。
- ②会話文における使役助動詞「する」は、天明～寛政期に完了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
- ③会話文における使役助動詞「さする」は、文化～弘化期に完了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

使役表現「(さ)する」の四段化の原因は、奈良時代(710～794)以降定着され、当時有力な活用方式であるサ行四段活用動詞(「照らす」、「悩ます」等)の類推に起因すると思われるが、このような考察を通して後期上方語に現われる使役表現「(さ)する」の四段化は単純な変化過程ではない、複雑な変化過程、つまり単語、活用形、文体によって様々な遅速差を見せながら進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また、前期上方語の傾向及び奥村三雄によって指摘された従来の論との共通点と相違点も分かった。

キーワード：後期上方語、使役助動詞、使役動詞、(さ)する、四段化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